

##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특성

김태홍\*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조출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단어 : 인구구조, 노령화지수, 맞벌이가구, 유업률

### I. 서론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3년 이후 여성인구의 노동시장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고도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가족관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는 IMF 협약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전망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출산율감소로 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의 노동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취학전 아동과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세대(sandwich generation)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인구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와 같이 변화되면, 여성이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체가 정착되게 되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제, 복지, 교육, 문화정책들을 본격적으로 개발·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감율, 노령화 정도, 경제활동상태의 현황과 전망 등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여성인구에 한정해서 향후 지역별 인구구조, 취업구조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 Ⅱ.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특성

### 1. 여성인구의 지역별 분포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95년 현재 4,509만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2,270만명, 여성이 2,239만명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약간 많다. 성별 인구증가율을 보면 1980년대에는 여성 인구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반전되어 남성의 인구증가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 결과 여성인구비율은 1980년 49.54%에서 1989년 49.69%로 증가하였다가, 1991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49.63%가 되었다.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995년 현재 서울에 전체 인구의 23.0% 그리고 경기도에 17.3%, 인천시에 5.2%가 거주하고 있다. 즉, 총인구의 4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여성인구증가율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90년-95년 동안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시로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대전과 광주가 2%대의 다소 높은

1) V. M. Lechner, M. A. Creedon(1994).

증가를 보였다. 이 외에 경남(1.1%), 서울(0.5%), 부산(0.2%), 대구(0.4%), 충북(0.3%), 제주(0.3%)에서도 여성인구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남(-2.4%), 충남(-1.6%), 강원(-1.6%), 전북(-1.5%), 경북(-0.6%) 등에서는 여성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시도별 남녀성비(sex ratio)를 보면, 제주도가 가장 낮아서 97.2이었고, 부산시, 광주시, 전북, 전남, 경북도 100.0 미만으로 여성인구가 더 많았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102.2)였다.

## 2. 지역별 여성인구의 구조

〈표 1〉 남녀인구의 지역별 분포(1995)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체	23.0	8.5	5.5	5.2	2.8	2.9	17.3	3.3	3.1	4.0	4.2	4.6	6.0	8.6	1.1	100.0
남자	22.9	8.6	5.5	5.1	2.8	2.8	17.0	3.3	3.1	4.0	4.3	4.7	6.0	8.6	1.2	100.0
여자	22.9	8.6	5.5	5.2	2.8	2.9	17.1	3.3	3.1	4.0	4.3	4.6	6.0	8.6	1.1	100.0
성비	100.9	99.3	101.5	102.0	99.4	102.2	102.0	102.1	100.5	101.1	98.3	98.1	99.6	101.2	97.2	100.8

자료 : 통계청(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년 인구구조를 지역별로 보면, 6개 시의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9개 도보다 높았다. 6개 시의 인구구조를 비교하면, 대체로 노령인구의 구성비는 유사하였으나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나머지 4개시보다 높았다. 9개 도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구조는 6개 시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의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6개시보다 낮고, 9개 도의 총부양비는 6개 시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경남의 총부양비는 약 45%에 달했다.<sup>2)</sup>

지역별로 여성인구구조를 보면, 6개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생산가능연령 인구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노령인구의 구성비는 낮았다. 6개 시의 여성인구구조를

2) 이와 같은 부양비 수준은 일본(43.6%: 1995년)이나 독일(45.6%:1995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교하면 서울, 부산, 대구는 나머지 3개 시에 비해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의 구성비는 높는데 비해서, 14세 이하 인구의 구성비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9개 도의 여성인구구조를 비교하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나머지 4개 도에 비해서 노령인구의 구성비는 더 높는데 비해서, 14세 이하 인구의 구성비는 낮았다.

〈표 2〉 지역별 여성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단위: %

	전 체			남 자			여 자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서울	21.2	74.6	4.2	22.2	74.8	3.0	20.2	74.3	5.5
부산	21.9	73.5	4.6	23.2	73.6	3.2	20.6	73.4	6.0
대구	22.9	72.6	4.5	24.7	72.1	3.2	21.0	73.1	5.9
인천	25.6	69.9	4.5	26.4	70.4	3.2	24.9	69.3	5.8
광주	24.7	70.7	4.6	25.7	71.1	3.2	23.7	70.3	6.1
대전	24.4	71.0	4.6	25.6	71.2	3.2	23.3	70.9	5.8
경기	25.7	69.5	4.8	26.4	70.0	3.6	25.0	69.0	6.0
강원	21.8	70.2	8.0	22.2	71.5	6.3	21.3	68.8	9.9
충북	22.6	69.3	8.1	23.5	70.1	6.4	21.6	68.4	10.0
충남	21.2	68.9	9.9	21.8	70.4	7.8	20.5	67.4	12.1
전북	21.9	69.0	9.1	22.7	70.4	6.9	21.1	67.7	11.2
전남	21.7	67.6	10.7	22.5	69.5	8.0	20.9	65.7	13.4
경북	21.3	69.0	9.7	22.8	69.7	7.5	19.9	68.4	11.7
경남	24.5	69.1	6.4	25.8	69.7	4.5	23.2	68.5	8.3
제주	23.4	69.9	6.7	24.6	71.7	3.7	22.2	68.1	9.7

자료: 통계청(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보육대상 연령층인 만3세이하 아동 수는 1995년 현재 3,427,409명이다.<sup>3)</sup> 이러한 3세이하 아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아동의 23.7%(78.6만명)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경기도(20.3%; 67.2만명)였다. 나머지 시의 만3세이하 아동분

3) 1995년의 만3세 이하 아동 수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의 자료이고, 지역 통계자료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자료임.

포를 보면, 부산이 8.0%, 인천 5.4%, 대구 4.5%, 광주 2.6% 그리고 대전은 2.4%였다. 9개 도를 보면 경남이 9.0%, 경북 5.8%, 전남 4.4%, 충남과 전북이 각각 3.5%, 강원과 충북이 각각 2.8%, 제주도가 1.1%였다. 1995-2000년 동안에 만3세 이하 아동인구는 연평균 0.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경기도였다.(연평균 증가율 3.0%). 그리고 인천(연평균 1.75%), 광주(1.14%), 대전(0.74%), 충북(0.91%), 경남(0.61%), 제주(0.5%), 경북(0.18%)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대구(-1.5%), 서울(-1.22%), 부산(-0.97%), 강원(-1.75%), 전남(-1.63%), 전북(-1.21%), 충남(-0.61%)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보육대상아동의 규모와 변동추이도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한번 투입된 재원은 회수가 곤란하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신중하게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이다.<sup>4)</sup>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령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인구에서 더욱 심했다. 이러한 인구노령화는 향후 더욱 진행되어, 6개 시의 남녀 노령인구비율은 1995년에 각각 3%, 6%내외에서 2000년에 4%, 7%내외로 증가될 것이다. 9개 도의 경우는 노령화 정도가 더욱 심하여, 1995년에 남녀 각각 7%, 10%내외에서 2000년에 8%, 12%내외로 증가될 것이다. 2000년에 여성인구의 노령화 지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아서 14.2%, 전북과 전남이 각각 13.6%, 충남이 13.4%를 보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노령화 정도는 독일(20.3%), 스웨덴(19.2%), 일본(18.8%), 프랑스(18.3%), 영국(18.0%)보다는 낮으나, 캐나다(14.7%), 미국(14.7%)과는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sup>5)</sup> 따라서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여성노인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여성정책도 또한 이와 같은 측면에 역점을 두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1997년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보육을 희망하는 여성근로자가 없다'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50.6%)와 같은 보육에 대한 수요부족이었다. 정무장관(제2실)(1997),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p. 59.

5) 우리나라의 자료는 통계청(1994), 「시도별 추계인구」. 외국자료는 E. Bos, M.T. Vu, A. Levin and R.A. Bulatao(1993).

### Ⅲ.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1995년 15세 이상 인구의 유업율은 53.5%였다. 그리고 남성 유업율은 71.6%인데 비해서 여성은 36.6%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별 유업율을 보면, 대체로 6개 시보다는 9개도의 유업율이 더 높았다. 6개시 중에서는 인천(53.6%), 서울(51.3%)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광주(47.3%)는 가장 낮았다. 9개 도에서는 충남(61.3%), 전남(61.3%)의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의 유업율(53.3%)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6개중에서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3.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0.5%)였다. 9개 도에서는 제주의 유업율(50.9%)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34.4%)가 가장 낮았다.

〈표 3〉 지역별 남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전 지역			시 부			군 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서울	51.3	70.6	33.4	51.3	70.6	33.4	-	-	-
부산	49.3	67.7	32.5	49.3	67.7	32.5	-	-	-
대구	49.6	69.1	31.9	49.6	67.1	31.9	-	-	-
인천	53.6	76.3	31.6	53.6	76.3	31.6	-	-	-
광주	47.3	65.1	30.5	46.3	65.1	30.5	-	-	-
대전	48.8	67.6	31.0	48.8	67.6	31.0	-	-	-
경기도	55.2	76.8	34.4	54.7	77.0	33.3	57.3	75.9	38.9
강원도	53.3	69.0	38.5	50.4	66.4	35.5	59.9	75.0	45.5
충북	54.9	70.7	39.9	50.2	67.8	33.3	62.6	75.6	50.6
충남	61.3	74.5	45.8	57.7	73.5	42.7	61.3	75.4	48.7
전북	53.9	69.0	40.5	50.4	66.8	35.5	67.8	77.5	59.5
전남	61.3	75.1	49.3	52.3	71.5	35.1	68.9	78.1	61.0
경북	58.6	74.5	44.3	56.0	73.0	40.6	66.4	79.1	55.6
경남	56.5	75.5	39.2	54.4	75.0	35.2	65.0	77.7	54.4
제주	61.2	73.1	50.9	57.4	72.0	44.8	67.9	75.1	61.8

자료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시도는, 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시도보다 유업율이 높다.<sup>6)</sup> 이에 따라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부(urban sector)에서 여성유업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44.8%), 충남(42.7%), 경북(40.6%) 등이었고, 낮은 지역은 광주(30.5%), 대전(31.0%) 등이었다. 군부(rural sector)에서는 제주, 전남, 전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기도의 여성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즉, 시부와 군부를 불문하고 6개 시의 여성 유업율은 9개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제주도는 시부와 군부를 불문하고 여성 유업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유업율이 낮은 원인은 무업상태에 있는 사유를 분석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무업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 무업자는 여성에 비해서 구직활동, 통학, 기타(연로, 질병 등)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직으로 인해서 무직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4.6%), 인천(4.2%), 대구(4.1%), 전남(4.1%)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도, 충북, 제주도 등이었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 등에서는 여성을 위한 고용안정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사나 육아로 인해서 무직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 강원도, 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은 여성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별로 연령계층별 여성의 유업율곡선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연령계층별 유업율 곡선은 M자형 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M자형곡선의 저점을 보면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서는 저점이 25-29세 연령층에서 발생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연령이 늦어져, 저점이 30-34세 연령층에 발생되었다. 또한 M자형 곡선의 2차 정점을 이루는 연령대를 보면, 광주를 제외한 5개시, 경기도와 강원도는 40-44세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50-54세 연령층에서 2차 정점을 보였다.

6) J. Mince(1966)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노동시장간의 유업율 차이는 산업구조의 지역별 차이에 기인하는 준항구적인 것이다.

〈표 4〉 지역별 연령계층별 여성 유업율

(단위 :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서울	10.4	54.9	46.2	34.0	37.5	38.2	34.9	30.3	22.4	7.7
부산	9.9	54.3	40.4	32.6	39.0	41.6	38.6	35.1	26.3	8.1
대구	7.7	49.5	36.4	33.5	39.3	40.9	39.8	34.4	27.8	9.3
인천	11.3	57.3	33.2	27.1	35.4	41.6	39.1	35.9	26.7	11.2
광주	6.7	44.9	40.0	35.7	36.0	38.0	38.9	32.9	27.6	9.9
대전	18.2	46.0	39.4	34.1	37.6	39.7	36.1	31.1	27.3	8.5
경기도	12.8	57.4	34.9	30.5	39.2	46.0	43.4	41.7	32.3	13.9
강원도	6.9	50.4	39.6	41.2	46.1	51.4	48.8	49.4	51.0	25.3
충북	9.3	46.1	35.5	37.0	45.4	54.3	55.1	58.6	54.0	31.4
충남	8.2	53.0	37.7	43.6	52.5	63.2	64.5	68.3	63.9	37.5
전북	5.9	39.2	37.6	42.4	47.8	53.8	57.3	58.1	62.3	32.8
전남	6.4	46.0	38.6	45.7	53.4	65.8	68.9	75.2	73.7	45.8
경북	6.6	52.1	34.8	39.8	47.5	56.7	64.4	65.6	64.4	37.0
경남	9.7	57.0	31.8	31.2	41.9	50.1	52.9	57.1	54.6	33.2
제주	9.2	58.0	50.9	49.9	59.9	63.1	72.7	70.2	64.5	43.7
전체	9.3	53.2	38.9	34.3	40.9	45.9	45.5	45.3	42.1	23.1

자료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15-19세 연령층의 여성 유업율을 보면 대전과 경기도, 인천, 서울 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15-19세 연령층의 유업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학생비율이 낮거나 혹은 학생이 시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1차 정점에서의 유업율과 저점에서의 유업율 차이를 지역별로 구하였다. 제1차 정점과 저점 간의 격차를 보면, 6개 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커서 30.2% 포인트였고 그 다음은 부산(21.7% 포인트), 서울(20.9% 포인트)이었다. 9개도 중에서는 경기도(26.9%), 경남(25.2%), 경북(17.3%)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여성의 유업율을 보면 6개 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았고, 9개도 중에서는 전남(45.8%), 제주(43.7%), 충남(37.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0세 이상 여성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은 서울, 부산, 경기도, 강원도 등이었다.

학력별 유업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업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인다.<sup>7)</sup> 우리나라 지역별 남녀 유업율에서도 초대졸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업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 유업율은 지역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여성 유업율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無學)인 여성의 유업율은 9개 도에서는 대체로 30-50% 수준을 보였으나, 6개시에서는 15% 내외로 극히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9개 도에서는 저학력여성에게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취업기회가 주어지나,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6개시에서는 무학여성의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이들에게는 취업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졸업 여성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졸이하 여성집단부터는 6개시의 여성유업율과 9개 도의 유업율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다. 대졸여성의 경우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61.3%)였고, 그 다음은 강원도(55.9%), 전남(54.8%), 광주(52.8%), 충북(51.5%) 순이었다. 여성 대졸자의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 등으로써, 이들 지역은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촉진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여성 유업율을 가구주여부별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6개 시에서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은 서울이 가장 높아서 53.8%이고 광주가 가장 낮아서 43.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가 30% 내외로 거의 같았다. 9개 도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61.1%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서 47.2%였다. 9개 도의 여성비가구주의 유업율을 보면, 유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48.4%인데 비해서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32.2%에 불과했다. 즉, 여성 비가구주의 유업율은 6개 시의 경우는 거의 편차가 없는데 비해서, 9개 군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유업율이 낮은 지역인 광주(43.9%), 강원도(47.2%), 부산 및 대구(각각 47.9%) 등은 이들 여성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W. G. Bowen and T. A. Finagan(1969), G. G. Cain(1966).

〈표 5〉 지역별 학력별 남녀 유업율

(단위 : %)

	남 자						여 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서울	34.5	51.0	47.5	82.0	43.4	89.0	12.3	24.2	25.5	40.1	29.7	44.4
부산	32.4	50.7	51.6	81.1	47.3	87.9	14.5	28.3	27.3	38.4	31.2	48.9
대구	34.6	55.5	52.1	82.1	47.7	88.8	15.3	30.8	26.2	37.0	28.8	47.3
인천	38.8	58.4	57.0	87.2	64.3	92.2	14.8	28.9	25.7	35.7	33.3	48.4
광주	37.8	51.1	41.7	80.1	32.8	88.2	14.4	29.0	21.0	34.7	26.0	52.8
대전	39.9	52.5	48.4	80.3	41.2	89.1	15.1	27.7	24.0	36.0	30.2	45.9
경기도	44.2	61.3	57.9	87.3	60.5	91.4	18.7	34.5	29.4	38.0	33.7	42.5
강원도	52.6	69.2	53.7	81.4	42.6	90.1	31.3	45.8	28.0	41.8	33.1	55.9
충북	57.4	73.3	54.1	84.4	38.8	89.3	37.6	50.8	30.7	38.8	24.6	51.5
충남	62.3	79.9	59.8	82.9	53.4	92.7	40.7	60.6	33.4	43.2	33.5	49.6
전북	58.1	74.6	52.9	81.8	30.7	88.0	40.3	55.5	27.9	37.7	22.9	49.3
전남	67.9	79.4	60.3	83.3	56.4	91.0	51.5	67.0	32.7	39.1	30.9	54.8
경북	63.6	75.9	58.5	84.3	60.9	92.7	44.2	58.8	33.5	37.7	38.6	49.1
경남	63.4	68.5	56.1	87.5	58.4	91.9	41.1	49.8	29.5	37.3	34.6	48.0
제주	57.6	65.8	56.3	83.7	58.3	92.4	48.6	59.8	38.2	53.5	44.9	61.3
전체	54.0	65.2	53.6	83.9	49.3	89.9	31.4	41.6	28.0	38.6	31.1	46.4

자료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IV. 지역별 가구단위의 여성 취업특성

##### 1. 지역별 부부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구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가계생산기술, 가족소득 등에 의해 결정됨으로 가구단위로 여성경제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sup>8)</sup> 1995년 우리 나라의 전체 가구의 73.4%가 유배우가구였다. 이들 유배우가구를 부부

8) 가구단위로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참가를 분석하는 가계생산이론은, G. S. Becker(1965), R. Gronau(1973) 등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의 경제활동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부부 중 남편만 취업한 가구(이하 남편외별이가구)가 전체가구의 40.8%로 가장 많고,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맞벌이가구가 24.5%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비취업자인 가구는 6.4%이며 부부 중 부인만 취업한 가구(이하 부인홀별이가구)는 1.7%로 매우 드물었다.

〈표 6〉 지역별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유형별 가구분포

(단위 : %)

	유배우가구				소계	무배우가구		미혼 가구주	미상	전체 가구수
	맞벌이 가구	남편 홀별이	부인 홀별이	부부 비취업		사별 가구주	이혼 가구주			
전 국	24.5	40.8	1.7	6.4	73.4	10.8	2.2	9.4	4.1	100.0
서 울	18.7	45.4	1.7	6.7	72.5	7.8	2.8	12.6	4.4	100.0
부 산	20.0	43.9	2.5	8.0	74.4	10.8	3.2	7.6	4.0	100.0
대 구	19.9	43.6	1.9	7.0	73.4	10.5	2.7	10.1	4.3	100.0
인 천	20.0	49.3	1.3	6.0	76.6	7.8	2.3	9.8	3.4	100.0
광 주	19.7	41.7	1.5	8.1	71.0	9.7	2.0	12.0	5.4	100.0
대 전	19.8	44.1	1.6	7.2	72.7	7.5	2.3	12.5	5.2	100.0
경 기	22.7	47.0	1.5	6.2	77.4	7.8	2.1	9.2	3.5	100.0
강 원	27.6	33.9	2.1	7.2	70.8	13.0	1.8	9.0	5.4	100.0
충 북	30.9	35.5	1.7	5.6	73.7	11.2	1.9	9.3	3.9	100.0
충 남	37.7	28.9	1.5	5.7	73.8	14.6	1.2	6.5	3.8	100.0
전 북	32.6	30.4	1.8	6.7	71.5	15.8	1.5	7.1	4.1	100.0
전 남	39.0	24.9	1.9	4.8	70.6	19.0	1.3	4.7	4.6	100.0
경 북	33.1	30.3	1.7	5.6	70.7	16.3	1.5	7.8	3.7	100.0
경 남	26.9	40.1	1.7	5.0	73.7	13.2	2.0	7.5	3.7	100.0
제 주	34.1	24.6	2.0	4.0	64.7	18.9	3.3	8.6	4.6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지역별로 유배우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6개 시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낮아서 20% 내외였고, 9개 도에서는 경기와 강원, 그리고 경남을 제외하면 모두 30%를 상회하였다. 9개 도에서 맞벌이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도는 충남(37.7%)이었으며, 전남(39.0%), 제주(34.1%), 경북(33.1%), 전북(32.6%), 충북

(30.9%)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기도는 9개 도 중에서 22.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강원도(27.6%)와 경남(26.9%)이었다.

부부가구의 경제활동유형별 구성을 보면, 남편홀벌이 가구는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2세대 가구였다. 부부 비취업가구는 고령층의 부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1세대 가구가 33.6%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1세대의 부부가족이나 3세대의 가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인홀벌이가구 중에서 그와 같은 가구의 구성비가 높았다. 부부맞벌이 가구는, 연령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1세대 가구와 부모가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을 보조해주는 3세대 가구의 구성비가 높았다.

또한 맞벌이부인 중에서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비율은 27.5%(洞部 基準)이었다. 이와 같은 비율을 직종별로 보면 사회지위측도에서 상위직에 속하는 고위임직원과 전문가는 48.2%, 준전문가 52.4%인데 비해서 하위직에 속하는 단순노무직근로자는 23.8%, 기계조작 및 조립공 14.7%, 농림어업근로자는 6.9%에 지나지 않았다.<sup>9)</sup>

〈표 7〉 부부가구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유형 분포

(단위 : %)

	맞벌이가구	남편홀벌이	부인홀벌이	부부비취업
1세대 가구	20.5	9.7	23.0	33.6
2세대 가구	65.7	81.6	65.3	51.5
3세대 가구	13.4	8.6	11.3	14.4
4세대 및 기타 가구	0.4	0.2	0.4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2. 지역별 맞벌이가구의 취업구조

맞벌이가구의 경제활동상태별 유형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유형의 경제활동을 하는

9) 사무직원 37.9%,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24.6%, 기능원 21.5%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가구가 69.3%이고, 나머지 30.7%의 맞벌이 부부는 경제활동유형이 서로 달랐다. 6개 시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시가 그리고 9개 도에서는 전남, 제주도, 경기도가 '맞벌이 모두 주로 일하는 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sup>10)</sup> 이에 비해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는 '남편은 주로 일하고 부인은 가사를 하면서 틈틈이 일하는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충남은 맞벌이 가구의 50.4%가 남편은 주로 일하고 부인은 틈틈이 일하는 유형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부부가 동일한 종사상지위를 가진 가구는 36.1%이고, 나머지 63.9%의 맞벌이부부는 부부가 서로 다른 종사상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맞벌이가구의 부부 종사상지위 유형을 보면,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맞벌이 부부가 전체 맞벌이가구의 4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이 30.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남편)임금근로자-(부인)자영업자유형이 7.5%, 기업주-무급가족종사자유형이 5.7%, 자영업자-자영업자유형이 4.5%, 자영업자-임금근로자가 4.3%이었다.

〈표 8〉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

(단위 : %)

아내 \ 남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기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맞벌이남편
임금근로자	30.3	7.5	1.6	0.8	40.2
자영업자	4.3	4.5	0.4	40.3	49.5
기업주	2.2	0.9	1.1	5.7	9.9
무급가족종사자	0.0	0.2	0.1	0.2	0.4
맞벌이부인	36.8	13.2	3.1	47.0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지역별로 보면 6개 시는 맞벌이 부부 모두가 임금근로자인 가구가 40-45% 정도였고, '남편이 자영업자-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가 20-30% 정도였다. 6개 시

10) 맞벌이 부부 모두가 주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75.5%, 부산시 75.0%, 대전시 75.5%, 전남 77.8%, 제주도 76.9% 등이었다.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부부 모두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광주시는 '남편 자영업자-부인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맞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가 6개 시와 유사하였다. 전남, 충남, 전북, 경북은 남편이 자영업자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이 65% 이상이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비율은 극히 낮아서 15% 미만이었다. 특이한 점은 제주도와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남편이 기업주이고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남과 강원도는 남편이 임금근로자이고 부인이 자영업자인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상당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

〈표 9〉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아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기업주	기타	맞벌이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무급가족	유형	
서울	44.7	6.6	5.9	5.0	17.8	8.4	11.6	100.0
부산	42.7	10.0	4.6	4.3	22.0	7.8	8.6	100.0
대구	39.2	9.4	5.6	5.5	24.4	8.0	7.9	100.0
인천	46.0	7.7	5.1	4.6	19.9	6.1	10.6	100.0
광주	34.0	11.1	4.8	3.5	28.9	8.5	9.2	100.0
대전	39.7	10.9	3.9	5.3	22.2	8.4	9.6	100.0
경기	41.7	7.7	5.6	4.9	25.1	6.0	9.0	100.0
강원	21.1	8.7	3.0	6.7	49.3	4.8	6.4	100.0
충북	21.0	7.1	4.7	3.2	55.4	0.2	8.4	100.0
충남	11.8	4.7	4.1	5.6	66.5	3.3	4.0	100.0
전북	14.9	6.0	2.2	3.4	65.2	4.2	4.1	100.0
전남	9.1	6.4	1.4	3.4	73.2	3.3	3.2	100.0
경북	14.8	6.1	3.1	4.3	64.9	3.0	3.8	100.0
경남	24.8	9.2	3.2	3.8	48.7	4.8	5.5	100.0
제주	20.0	8.5	2.4	3.9	51.4	7.0	6.8	100.0
전국	30.3	7.5	4.3	4.5	40.3	5.7	7.4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에, 여성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된다. 따라서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은, 6개 시와 경기도, 제주도는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나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높은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 강원, 경남 등에서는,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맞벌이부부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64.5%이고, 서로 다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맞벌이가구가 35.5%이었다. 6개 시의 맞벌이 취업업종을 보면 대구와 인천은 부부 모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약 19% 내외로 높았다. 광주와 대전시는 부부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한 광주시는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10.2%로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남편 금융업-부인 금융업', '남편 금융업-부인 사회서비스업'의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개 도를 보면 경기도는 부부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다른 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으나 6개 시보다는 높아서 13.6%였고,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14.8%로서 나머지 8개도 뿐만 아니라 광주나 대전시보다도 높았다. 나머지 도를 보면 지역경제구조를 반영하여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60% 내외였다. 그리고 경남과 충북은 부부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부부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혹은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부부의 직종을 보면 부부가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58.7%이었고, 직종이 서로 다른 경우가 41.3%이었다. 지역별로는 6개 시는 9개 도에 비해서 부부 모두가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직, 기능원, 단순노무직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농어업직인 가구의 비율은 낮았다. 6개 시는 맞벌이가구의 직종 구조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대전과 광주는 상대적으로 부부 모두가 전문가인 가구비율이 높았다. 인천시는 부부 모두가 준전문가인 가구비율은 나머지 5개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서비스 및 판매직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과 부산은 부부 모두가 기능원인 가구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9〉 맞벌이부부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단위 : %)

남편 \ 아내	전문가	준전문가	준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직	기능원	기능원	단순 노무직	기 타	맞벌이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판매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원	단순 노무직	유 형	전체
서울	3.9	2.4	3.4	2.8	22.5	0.3	3.9	9.0	2.6	49.2	100.0
부산	3.2	1.8	1.1	2.8	22.4	3.6	5.2	8.6	2.9	48.4	100.0
대구	3.9	1.4	0.7	1.1	22.4	5.0	4.0	7.2	2.0	52.3	100.0
인천	1.9	3.3	1.8	2.9	16.9	6.5	4.7	7.6	2.1	52.3	100.0
광주	4.8	2.1	1.1	2.4	21.3	10.0	3.5	3.5	3.2	48.1	100.0
대전	5.5	2.7	2.3	3.1	23.4	4.7	5.1	3.7	2.3	47.2	100.0
경기	2.3	2.8	1.7	2.5	16.3	13.3	3.7	4.8	2.4	50.2	100.0
강원	2.0	1.5	0.7	1.4	16.9	38.2	2.7	1.6	2.4	32.6	100.0
충북	1.5	1.4	0.5	1.5	13.0	44.6	2.1	1.5	1.7	32.2	100.0
충남	1.6	1.0	0.5	0.9	9.7	61.8	1.5	1.4	0.9	20.7	100.0
전북	2.3	0.8	0.7	1.1	11.3	56.7	1.7	1.9	1.2	22.3	100.0
전남	1.1	0.8	0.3	1.1	9.1	66.3	1.5	1.5	1.3	17.0	100.0
경북	1.2	1.0	0.3	1.0	8.9	59.0	1.7	1.5	1.1	24.3	100.0
경남	2.1	1.2	0.8	1.6	12.8	39.4	3.1	2.0	1.4	35.6	100.0
제주	1.6	0.4	0.7	1.6	13.4	44.0	2.3	0.8	3.2	32.0	100.0
전국	2.5	1.9	1.3	2.0	16.0	28.3	3.1	4.4	2.0	38.5	100.0

자료 :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9개 도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취업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남, 충남, 경북, 전북은 부부 모두 농어업관련 숙련근로자인 가구비율이 상당히 높고, 부부 모두가 서비스 및 판매직근로자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 경기, 전북, 경남, 강원도는 부부가 전문직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남은 남편 기능공-부인 판매서비스직과 부부가 모두가 기능원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제주도는 부부 모두가 단순노무직인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Ⅳ. 지역별 여성정책의 과제와 방향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특성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전라남북도, 충남, 강원, 경북은 여성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북은 여성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총부양비도 서구의 일부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서울시, 제주도는 여성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광주와 경기도는 6개 시와 9개 도에서 각각 유업율이 가장 낮았다. 6개 시와 경기도는 부부 모두가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에는 지역별 여성정책 특히 취업관련 정책의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변화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여성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정도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해당 지역의 노동력 감소와 함께 사회복지비용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과 공무원의 양적 질적 확대를 초래한다. 따라서 2000년에 총부양비가 약 4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북 등은 여성노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정책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과 잠재여성인력의 특성도 다르므로, 여성고용정책도 지역사정에 맞게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부산, 인천, 대구, 전남에 서와 같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여성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여성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 인천, 대구, 전남은 여성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서울, 대전, 대구는 고학력 여성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유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학력여성의 취업촉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고학력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여성인구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구주는 가구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강원도, 부산 및 대구의 여

성 가구주 유업율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의 취업구조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성취업자를 위한 정책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성 농어민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충남, 경북에서는 여성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지원, 여성농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천, 부산, 서울, 경기도, 경남, 경북 등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퇴직율을 낮추는 각종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에는 여성 자영업자가 높으므로, 여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그리고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경기도, 강원 등에서는 여성창업지원, 여성경제인 경영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맞벌이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자영업자이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이면, 여성은 직장가정의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6개 시와 경기도는 부부가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들 가구의 가사,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시설, 학교급식 등의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 부산, 서울시는 만3세 이하 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아동시설의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도내 시군별로 제한적으로 확대보급하고 건물설립 보다는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서 적용이 제외되고 또한 이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중에서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가구비율이 높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북에서는 이들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김태현·최진호(1995),《한국의 인구와 가족》,일신사.
- 김수곤(1976),《노동공급과 실업구조》,한국개발연구원.
- 김유경(1995),“가구구조의 변동과 시도별 가구수 추계”,《한국인구학회지》, 제19권 1호.
- 김태홍(1996),“노동시장 전망과 잠재인력활용방안”,《경제학연구》, 제44집 3권, 한국경제학회.
- 김태홍(1996),“단시간노동의 결정요인분석”,《노동경제논집》, 제19집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상하, 김응익(1996),“한국의 출생성비의 시계열적 추이에 관한 연구”,《한국인구학》, 19권 2호.
- 송위섭(1995),“인구변동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2호.
- 어수봉(1991),《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호(1996),“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KDI정책연구》, 봄호.
- 정무장관(제2실)(1997),《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 통계청(1993),《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 통계청(1994),《지난 30년간 고용구조의 변화》.
- 통계청(1994),《시도별 추계인구》.
- 통계청(1996),《장래인구추계》.
- 통계청(각년도),《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1989, 1992),《고용구조조사보고서》.
- 總理府編(1995),『女性の現状と施策』.
- 雇用政策研究会(1992),『勞動力需給の展望と課題』.
- 渡 惠知子(1989),『國內人口移動と地域經濟隔差』, 人口學研究, 日本人口學會, vol. 12.
- 日本勞動省(1988),『勞動力需給の長期豫測』.
- 水野朝夫(1995),『勞動力の供給制約と日本經濟』, 大明堂.
- 清家編(1993),『高齢化社會の勞動市場』, 東洋經濟新聞社.
- 丸尾直美(1994),『人口高齢化と福祉政策の課題』, 人口學研究, 日本人口學會, vol. 17.
- Allat P., Keil T., Bryman A. and Bytheway B.(eds)(1987), “Women and the Life Cycle: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London: Macmillan.
- Becker G. 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September, pp. 463-517.

- Blundell R. and Walker I.(1984), "A Household Production Specifica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in Demand", *Economic Journal*, Vol.94.
- Bos E., Vu M. T., Levin A. and Bulatao R. A.(1993), "World Population Projec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owen W. G. and Finagan T.A.(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Univ. Press.
- Cain G. G.(196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Univ. of Chicago Press.
- Ermisch E. and Ogawa N.(1994),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e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Oxford
- Gronau R. (1973), "The Inter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fe's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pp. 91-116.
- Hans-Peter Blossfeld(eds), "The New Role of Women-Family formation in Modern Societies", San Francisco:Westview Press.
- Lechner V. M., Creedon M. A.(1994), "Managing Work and Family Lif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ince J.(1966),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A Review of Recent Evidence", Robert A. and Margaret S.(eds), *Prosperity and Unemployment*, Wiley, pp. 73-112.
- Ogawa N.(1989), "Population Ageing and Household Structural Change in Japan", Eekelaar J. M. and Pearl D.(eds.), *An Aging World: Dilemmas and Challenges for Law and Social Policy*, Oxford:Clarendon Press.
- Prestone S. H.(1982),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Life Cycles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Apr.).
- Rees T.(1992), "Women and the Labor Market", Routeledge.
- Ribar D. C.(1991),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Doctoral Thesis*, Brown University Press.
- Smith J. P.(1980),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oung-Soo Shin, Tae-Hong Kim(199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hoice of Occupation in Korea", Population Series, No. 88-12, August, East-West Center.
- United Nations(1992), *Demographic Yearbook-Special Issue: Population Ageing and Situation of Elderly Persons*, New York.

---

abstract

---

## Population and Employment Structure of Women by Region

Tae-hong Kim

In recent, Korea introduced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the local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for women. Those plan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ot the particular environments of regional societies but similar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Despite of geographical migrations, we can find differences of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among regions. As the result, most of regional policies for women were ineffective.

This paper examines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 status of women by regions and recommends the long and medium direction for local policies for women. For analysis, it utilizes the 2% sample data-set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199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ly, the dependency rate of Chungchong-do, Cholla-do, Kyongsangnam-do will reach about 45% in 2000. Therefore, as soon as possible, thos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abor policies to enhance the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persons and welfare policy for them. Secondly, the level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women differed largely from region to region. Thus, local governments should set up labor market policies for women according to regional situations. For examples, in Kyonggi-do, Seoul, Daejeon, Daegu which unemployment rate of the highly educated women are relatively high, those local governments should seek the measures to tackle unemployment problem of them. Thirdly, due to the difference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omen's employment structures differed also by region. Hence,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ulate suitable plans to consider the working status of regional women's workers.

Key words : population structure, index of ageing, dual-income household, the usual activity rate